

# 수출 中企, 시장 다변화 준비... “금융·물류 지원 절실”

## 中企 ‘美 철강관세’ 파장

중기부·중기중앙회·중진공 수출 기업과 애로 대응 방안 모색 김기문 회장 “수출길 막혀 기업 고충” 오영주 장관 “경영정상화·수출 지원”

철강·알루미늄 관련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발’로 사면초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관련 중소기업은 1815개사다. 수출 규모는 각자 다르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복병을 만났고 미국 외에 수출 대체지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 팔탄면에 있는 지제이알미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심각한 얼굴로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지난해 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지제이알미늄은 이 가운데 약 112억원(772만 달러) 어치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700만 불 수출의 탑’도 지난해 수상했다. 99년 창립 이후 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관련 각종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

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비 구입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중진공에서 기업이 원하는 만큼, 제때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해 지난해 500억원 가량의 매출 중 35% 가량을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 제품도 포함된다. 정부에 실질적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볼트, 너트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업인들은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물류 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다보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가 있다.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수출이 정말 걱정이다”며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국 중기청 등 연방정부 및 12개 주정부 경제관료들을 만나 트럼프 신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총 67명을 투입,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이들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달 중 중기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발로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기부도 수출바우처와 2500억원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풀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 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5월 예정인 수출바우처 2차 공고 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국 외에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수출·매출 실적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지표를 29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화성(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국내외 AI 규제 강화... 中企, 대책마련 시급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기업 부담 가중 개발 초기 규제 적용, 스타트업 위기 AI기업 “설 자리 없어... 정부지원 필요”

국내 외 인공지능과 관련된 표준화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AI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2일 중소기업,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세계 최초로 만든 ‘AI(ACT)’법은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내년 8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체들은 EU가 제시한 AI관련 규제 강화가 국내 AI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법은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EU외의 국가에서 개발됐더라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U에 점목할 시에는 해당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경진 연구위원은 ‘EU AI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문서화나 위험 평가, 적합성 인증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EU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규제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소통 창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AI 관련 기업 육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내 ‘AI기본법’ 때문이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EU의 AI법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EU의 고위험군 AI 창작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AI윤리와 안전성 기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따른 활용, 관리, 인증, 시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마련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AI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 롯데케미칼, 껌S25에 재활용 소재 공급

삼성 반도체 웨이퍼 트레이 재활용

롯데케미칼이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에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에서 반도체 웨이퍼 이

송에 사용된 폐기물(웨이퍼 트레이)을 수거해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재활용하고, 이를 갤럭시 S25의 SIM 트레이, 사이드키, 볼륨키 등에 적용한다. 또한, 폐어망을 활용한 폴리amide(PA) 소재를 가공해 갤럭시 S25의 스피커 모듈 등 내장 부품에 공급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사업부

간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의 적용을 확대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2023년부터 자원 순환 브랜드 ‘에코시드’를 운영하며, r-ABS, r-PC, r-PET 등 다양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 에코프로이노, ‘리튬메탈음극’ 개발 본격화

“전고체 배터리도 주도권 가져갈 것”

리튬가공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음극소재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하이드로퀘백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차세대 리튬메탈음극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차세대 리튬메탈음극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리튬가공 노하우와 하이드로퀘백의 메탈음극 연구 성과를 결합해 리튬메탈음극 개발에 힘을 합친다는 복안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탄산리튬을 고순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통해 삼원계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산 2만6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는데 삼성SDI 등 배터리 셀업체에 지난 2022년부터 총 3만2000톤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한 바 있다.

하이드로퀘백은 캐나다 퀘벡주 정부가 소유한 전력회사로 오랜 전지 소재 개발 경험을 가진 ‘CEETSE’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CEETSE는 1980년대 초부터 리튬메탈음극 및 전고체 전지 분야에 선도적인 투자를 이어 왔다.

리튬메탈은 음극재에 주로 사용되는 흑연과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커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운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노베이션이 리튬가공에서 리튬메탈음극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에 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현대글로벌비스, 스마트 물류 혁신 선배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 첫 참가

현대글로벌비스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W 2025)’에 참가해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역량과 물류 자동화 기술력을 선보인다.

AW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공장·자동화 관련 전시회로 오는 14일까지 개최되며 현대글로벌비스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시회에서 현대글로벌비스는 스마트 물류 특별관에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현대글로벌비스는 전시 부스에

서 보스턴다이나믹스사가 개발한 물류로봇 ‘스트레치’의 시연도 진행한다. 아시아 국가에서 스트레치의 오프라인 시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레치는 약 23kg에 달하는 상자를 시간당 평균 600개씩 나를 수 있는 팔을 갖추고 있다. 하부에는 자율 이동 로봇인 AMR이 장착돼 최적의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스트레치를 고정시키고, 팔레트 위에 있는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는 디팔레타이징 작업을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